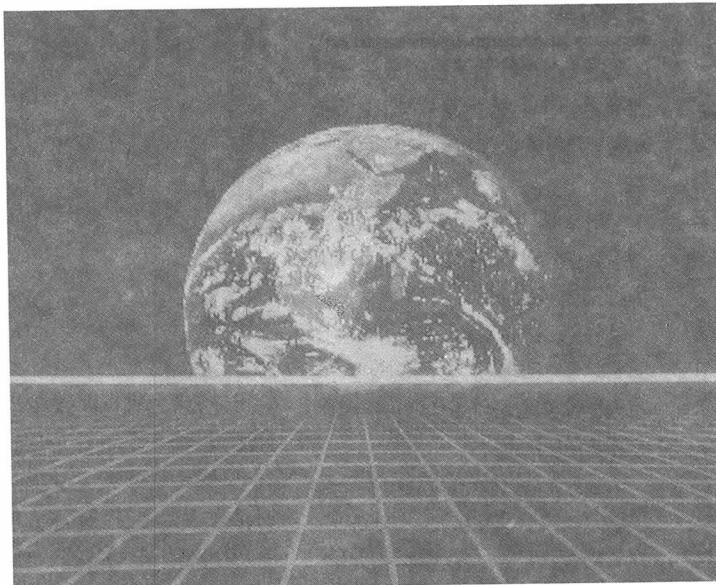


# 세계각국의 정보통신시장 동향



## 일 본

NTT데이터통신  
자동인식장치 개발

NTT데이터통신은 광학식문자읽기장치(OCR)기술등을 이용하여 문장과 표가 혼재한 문서를 자동적으로 읽어 그 형태대로 파일할 수 있는 문서자동인식장치를 개발했다.

문서를 문자, 표, 화상정보로 각기 분리하여 문자와 표는 코드화하고 영상은 부호화하여 축적한다.

광디스크 이용보다 파일의 양이 훨씬 적고, 이 장치를 워크스테이션 등에 접속하면 문서를 그 형태대로 꺼내어 자유롭게 편집, 재축적이 가능하다.

도형과 그림이 섞여있는 문서를

그대로 읽혀지는 장치의 개발은 이것이 처음인데, 내년 봄에 상품화 할 예정이다.

이 장치는 문자인식기능과 화상처리기능, 파일기능으로 나누어 진다.

이미지 스케나로 입력된 문서는 본문부분, 도표부분, 화상부분으로 나누어져 문자는 한 문자씩 분리되고 OCR로 어떤 문자인지 인식한다. 도표는 문자와 도형부분으로 분리되어 문자는 OCR로, 도형은 직선별로 나누어져 코드화되어 축적된다. 화상부분은 그대로의 형태로 축적되나 이때 부호화된 정보는 대폭적으로 압축된다.

자동인식장치 자체가 문서를 축적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광디스크등 외부기억장치에 접속하면 대량의 문서 파일도 가능하다.

문서를 그대로 이미지 형태로 기억시키는 것은 광디스크가 있으나 파일용량이 방대하고 편집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이 인식장치는 이미지부분의 정보를 압축하므로 기억용량이 50분의 1이하가 되며, 파일관리가 간소화되고, 문서 및 표는 모두 코드화하여 입력되므로 문서를 다시 컴퓨터상에

불러내 편집하는 등의 작업이 간단해 진다.

처리속도는 A4판이 30~60초 정도이며, 크기는 의자정도의 크기이다.

향후 동사는 크기를 소형화하고 문자의 인식율을 95% 이상으로 하여 실용화 할 예정인데, 가격은 2천만엔 정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 광전제작소

### 전파방향탐지시스템 개발

육상 및 선박통신기 제작회사인 광전제작소(동경소재)는 혼신전파 중에서 방해전파의 방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불법전파 감시에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낙뢰의 예측 및 낙뢰지점의 추정, 다중파의 분리등 다채로운 응용이 전망되고 있어 내년중에 상품화 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1986년 미국의 R.O.SCHMIDT 박사가 발표한 「MUSIC法」을 이용한 것으로 MUSIC은 복수신호의 분리기술이란 영어 두문자를 뜻 것이다.

이것은 복수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수신한 신호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각 신호의 방위, 양각,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안테나의 수보다 하나 적은 종류의 전파를 분석할 수 있다.

동사는 반경 88센치미터의 안테나 5개 한조를 우산형으로 제작하고 이를 수평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서 마치 레이다처럼 전파의 방향을 찾아내도록 되어 있다.

종래의 안테나는 신호의 진폭성분

이나 위상성분중 하나만 이용하였으나 MUSIC법은 양성분을 함께 이용하므로 혼신전파를 찾아낼 수 있다.

또한 전파의 분리기술이 진보되면 라디오전파의 간격을 현재 6KHz에서 더욱 협대역화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래며로서 현장중시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연구원은 전체의 18%에 머물러 전년비 신장율도 84% 증가에 그쳤다.

미국

NBC

### 경영부진

미국 3대 텔레비전 방송의 하나인 NBC가 미국의 경기회복이 진연된데 영향을 받아 광고수입이 저조하므로 뉴스부문 지국을 폐쇄하는 등 경비절감에 나서면서 매수 소문이 나돌고 있다.

미국의 기업매수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마빈·데이비스씨에 의한 NBC의 매수설이 나돈다는는데 NBC의 로버트 라이트사장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모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은 시인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아 소문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NBC는 앞으로 1년간 8천만달러의 경비 억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뉴스부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지국 폐쇄에 이어 아틀란타, 뉴욕지국을 폐쇄할 방침이다.

뉴스부문의 축소는 다른 네트국인 ABC, CBS도 공통된 경향인데 현지 방송국에 의뢰하든가 CBS와 같이 24시간 CATV뉴스사인 CNN과 제휴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NBC의 경우에도 뉴스취재를 포함한 뉴스부문을 현지 방송국에 의존함으로서 경비절감을 꾀하고 있다.

CNN이 해외지국의 수를 늘려가는 것과 대조적이다.

경영이 어려워진 것과 관련하여 GE가 NBC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어 월가에서는 요주의 기업으로 되어 있다.

## CJJ

### 취업정보 제공개시

미국 최대의 주간 취업정보지·캘리포니아 좀 저널(CJJ)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신인 부담 전화번호 「900번」을 이용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구직자는 전화 한통화로 취업정보를 얻는 것으로 1분당 통화요금은 1달러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실업율은 전 미국 평균보다 높아 수요가 클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JJ는 9월상순부터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북부와, 산디에이고를 위시한 남부 주변에서 900홈페이지와 개발한 S/W를 이용하여 이 서비스를 시작하였는데 사무직, 전화교환원, 미술관 관리직, TV국의 리포터등 현재 700건이상의 구인광고가 등록되어 있다.

구직자는 푸쉬식 전화로 지정된 번호를 호출하여 관심있는 직종을 선

택하면 광고를 낸 회사의 개요, 응모자격, 급여, 이력서 제출처등의 정보가 음성으로 전달되며, 특정 키를 누르면 필요없는 정보를 지나가게 하든지 다시한번 듣고 싶은 정보를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다.

구인측의 광고료도 주당 50달러로 신문 잡지보다 저렴하다.

## 스카이텔

### 위성이용 전자메일 개시

미국의 통신서비스 회사인 스카이텔은 통신위성을 이용한 이동형 전자메일 「스카이 워드」서비스를 개시했다.

통상의 PC나 휴대용 수신기용으로 40~80문자의 문장을 송신할 수 있다.

PC간의 전자메일과 같은 요령으로 송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암호번호를 지정하여 메세지등 입력시키면 공중회선으로부터 동사의 통신망에 접속하여 통신위성을 중계로 하여 전 미국 어느곳이나 30초내에 송신된다.

사용료는 수신기 임차료와 50회 송신료를 포함 월 99달러이다.

## 클레이리서치

### 모의실험용 S/W툴 개발

클레이리서치사는 슈퍼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간에 효율적으로 분산처리를 하면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비주얼화 할 수 있는 S/W개발 툴을 개발했다.

이 툴은 국제표준기구(ISO)에 준거해 만든것으로 종래의 것 보다

사용자가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작성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다목적 그래픽 시스템(MPGS)으로 명명한 이 S/W툴은 국제표준인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GUI)의 하나인 「OSF/Motif」에 대응하고 있으며, 비주얼화 하기 위한 각종 지원기능이 들어가 있다.

슈퍼컴퓨터와 워크스테이션을 활용한 S/W개발은 자동차의 충돌 테스트 시뮬레이션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이번의 툴은 골프장의 설계등 새로운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CNN 터너

### 일본에 자회사 설립

CNN뉴스를 제작 공급하는 터너 보로드 케스팅시스템(TBS)은 일본에 뉴스프로판매를 위한 「터너 인터내쇼날 저팬(TLJ)」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TBS가 해외에 판매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CNN의 일본에서의 지명도가 높아 동경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TLJ는 TBS의 100% 자회사로 방송프로판매외에 아시아 총괄회사로서 동경을 포함한 각 지국의 일상 업무도 지원한다.

CNN은 현재 미국 이외의 지역에 「CNN 인터내쇼날」제목으로 뉴스프로를 24시간 방영하고 있다.

TBS는 이를 내년에 일반뉴스, 경제뉴스, 스포츠뉴스 일기예보등 4개 채널 편성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제휴사 개척도 TLJ업무가 될 것이다.

### UI

#### 신 S/W로 OPEN SYSTEM 실현

UNIX의 국제표준화 단체인 UNIX 인터내셔널(UI)은 OPEN SYSTEM을 실현하기 위한 아키텍쳐인 「UI-ATLAS」와 이것을 기본으로 한 S/W군을 발표하였다.

각 S/W는 93년까지 순차적으로 출하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국제표준화 단체인 OPEN S/W FOUNDATION(OSF)의 분산처리 S/W 「DCE」 등 외부의 S/W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S/W의 표준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UI-ATLAS는 「기본 OS」, 「통신 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적용업무 서비스」, 「적용업무 툴」의 다섯종으로 구성하는 S/W의 설계 개념이며 UI는 93년까지 동 개념에 맞는 구체적인 S/W를 개발한다.

이번에 발표한 것은 다른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시스템과의 접속을 가능케 하는 「OSI 7레이어 서비스」, MOTIF, OPEN LOOK등 대표적인 UNIX용 그래피カル 유저 인터페이스(GUI) 양쪽을 지원하는 「독립 GUI」 등 7개 품목이다.

분산처리 S/W는 OSF의 「DCE」를 채용했다.

### 지역전화회사

#### 정보서비스 진출 채비

미국의 벨전화회사들이 정보서비스 사업 해제를 위해 일제히 움직이고 있다.

동서비스에 참여를 규제하고 있는

미국연방지방재판소의 해롤드 그린 판사가 지난 8월, 규제의 해제방침을 나타냄으로서 각 지역전화회사가 사업화 계획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해제 시기는 미정이나 규제완화와 동시에 전자출판 및 쌍방향 영상서비스등 사업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벨전화회사는 미국전신전화(AT & T)의 분할로 탄생한 지역전화회사 7개사인데 독점금지법의 입장에서 정보서비스의 참여가 금지되어 왔으나, 이미 규제 위반이 아닌 해외에서 사업의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지난 7월 하순 그린판사의 판단이 나온 직후부터 구체적인 사업화계획이 점점 부상되고 있다.

각 지역전화회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전자전화번호부(옐로페이지), 홈 시큐리티서비스, 영상통신을 이용한 의사와 환자의 의료진단서비스, 원격수업등이다.

이와같은 영상계통 서비스를 전송하기 위해 벨이틀란틱(필라델피아)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전화회사가 공동으로 광파이버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벨전화회사들은 작년에 의회등에 규제완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조기 규제완화를 위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IBM

#### PS/2 H/W성능 대폭증강 판매

IBM은 지난 8월부터 PS/2 PC에 50MHz를 내장하여 판매하기 시작했다.

금년 8월12일은 IBM이 PC시장에 참여한지 10년째가 되는 것을 기

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써 H/W성능이 10년전 제품에 비해 50배 그리고 기억용량은 천배로 발전했다.

IBM의 첫 PC는 당시 Don Estridge(후에 부사장 역임)씨가 12명의 스텝과 일종의 사내 벤처방식으로 개발하였으며 판매와 동시에 전세계의 인기를 끌었고 PC의 표준품이 되었다.

그러나 10년후인 지금 IBM의 PC사업은 신흥기업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IBM은 금후 10년의 변화가 보다 빠르고 격심해 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몇년안에 음성에 의한 입력이 실현될 것이며, 수서입력, 무선에 의한 통신, 탁상 TV회의 등 PC의 새로운 용도가 열릴것으로 예측하고 차세대 기술개발 경쟁에서 선두를 달릴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 유럽

#### 오스트리아

#### 통신사업 자유화 구상

오스트리아에서 지금까지 국가사

업으로 거의 독점상태였던 통신사업을 개방하여 통신관련 서비스사업을 자유화하려는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장래 유럽공동체(EC)와의 시장통합에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정부는 국가적인 이해에 관계되는 통신사업의 기간부문을 제외하고 내년중순 통신사업을 자유화하는 기본방침을 확고히 했다.

새로운 전기통신법안은 「통신사업은 모든 참가자에게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며, 공공사업체와 민간기업은 사업참여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등 경제계도 통신자유화를 강력하게 밀고 있으며, 이미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실현되고 있다.

## BT

### 텔리포인트 휴대전화사업 중지

영국의 BT는 차세대 간이휴대전화로서 기대되고 있는 텔리포인트방식의 전화사업자인 자회사 폰포인트의 영업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이용자의 수가 적고 전화중계기지국, 텔리포인트의 설치등 초기투자가 예상이상으로 팽창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 방식의 전화사업자가 이 외에도 3개사가 있으나 모두 경영부진으로 영업중지 상태에 있다.

세계적으로도 텔리포인트사업의

재검토 기운이 강하게 일고 있다.

텔리포인트방식의 전화는 퍼스널 전화(PCN)의 일종으로 코드리스전화의 수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용한다.

또 종래의 셀룰러방식 휴대전화에 비해 고밀도지역에 중계기지를 설치함으로써 미약한 전파라도 통화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화기가 소형이 되면서 일정한 지역내에서 사용하는 전화대수가 수배로 증가하는 이점이 있다.

영국에서는 BT계열인 폰포인트사외에 제2공중전화사업자인 머큐리계열의 MPC, 카나다의 노던텔리콤 및 영국EMI가 출자한 유니텔, 홍콩의 허치슨이 출자한 마이크로텔등 4개사가 진출해 있다.

영업을 중지한 폰포인트는 1989년 영업을 개시, 지금까지 영국내에 3천 3백개소의 중계기지를 설치하였으나 통화경비가 셀룰러방식에 비해 반드시 저렴치 않고 통화가능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전화가입자가 약 8백 명에 머물러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BT는 애초에 텔리포인트방식 전화사업의 장래성을 감안, 폰포인트사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으나 계획을 변경, 영업중지에 따라 고객이 구매한 휴대전화를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이분야 사업에서 전면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 올리베티등 3사

### 유럽정보네트 구축계획

이태리의 올리베티, 프랑스의 불, 독일의 지멘스 자회사 지멘스닉스돌

프 3사는 유럽의 정보네트 구축에 제휴키로 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제휴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3사의 제휴는 컴퓨터분야에서 유럽기업이 연대하여 미국 일본에 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사는 유럽공동체위원회가 제창하고 있는 유러피언네트워크시스템(ENS) 계획에 공동참가함과 동시에 S/W개발등에서 제휴하기로 기본합의 했다.

ENS계획은 유럽시장 통합에 맞추어 유럽을 연결하는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사는 유럽공동체위원회의 지원하에 연구개발 자금을 분담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유럽내 제휴는 가전분야가 선행되고 있고 프랑스의 톰슨사와 네델란드의 필립스사가 고품질 TV 공동개발에 나서고 있다.

정보분야는 1984년부터 유럽공동체가 컴퓨터, 단말기등 개발을 위한 「ESPRIT」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끼리의 기술제휴까지는 발전하고 있지 않다.

동분야에서는 이번 3사제휴가 본격적인 기술제휴의 제1보가 된다.

유럽에서는 전자, 정보산업의 악화가 심각하여 프랑스의 불社는 90년도 결산에서 사상 최고의 적자를 보았고 필립스, 톰슨社도 실적향상에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위원회는 금년 4월말 필립스, 톰슨, 지멘스, 불, 올리베티와 베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일본의 유럽진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바 있다.